

# Revolution

# 혁명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

### 3차 희망버스 특보

발행일 : 2011년 07월 30일  
발행처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 정리하고 철폐없이 희망버스는 끝나지 않는다!



김진숙 동지가 1월 9일 정리하고 철폐를 요구하며 외롭게 85호 크레인으로 올라간 지 벌써 200일이 넘었다. 한진 노동자들도 함께 크레인에 올라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리하고 철폐를 요구하는 한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희망버스와 결합하면서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자본가들도 바빠졌다. 한진 정리해고의 책임자 조남호 한진 회장은 한나라당의 비호 하에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회 청문회조차 피해가고 있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를 비호하고 있다. 2차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희망버스와 한진 노동자들의 결합을 방해하기 위해 최루액과 차벽을 동원한 폭력적인 탄압도 서슴지 않았다. 3차 희망버스 역시 출발하기도 전부터 탄압을 겪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투쟁의 방향이 정리하고 전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까, 85호 크레인과 희망버스가 한진 중공업의 투쟁으로 머무르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기꺼이 자본의 사병 역할을 하고, 국회가 자본가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한진 중공업 투쟁과 희망버스 투쟁이 전체 자본에 맞선 투쟁이라는 점, 자본과 한통속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한진 노동자들의 투쟁도 처음에는 한진 자본에 맞서 올라갔지만 이제 전체 자본에 맞선 투쟁이 되었고, 자본과 한통속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이 되어가고 있다.

### 소금꽃은 사이비 진보정치인들 틈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피어난다.

여기에 부르주아 정치세력도 손가락을 얹고자 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은 때때로 조남호에 대해 호통을 치고, 희망버스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장 김진숙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은 누구도 소금 꽃이 될 수 없다. 정리하고제는 민주당의 김대중 정권이 IMF 시기 자본가 국가 부도 사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자본가들의 이윤보장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정동영이 아무리 이곳저곳 투쟁현장을 찾아 진정성을 호소한다 한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한 쪽 축을 떠받치고 있는 민주당은 결코 정리하고 철폐에 관심이 없다. 이들은 희망버스를 보면서 표계산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진보정당들 및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현재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은 정리하고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다. 정리하고 철폐를 외치는 것은 곧바로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직권조인한 한진중공업 지회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채길용 집행부로 한정되지 않는다. 채길용 집행부의 어용적 작태를 사실상 방관하고, 사후적으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조합 관료들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들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지지를 유지하자니 관료들을 비판할 수 없고, 비판하자니 당의 관료적 기반이 떨어지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 세력에게는 희망버스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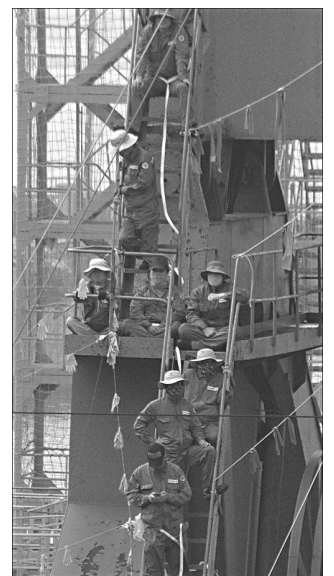
물론 혼란 속에서는 가짜 소금 꽃들이 활개 칠 수 있지만 투쟁의 목표가 분명해질 때 가짜들은 건디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 당장 희망버스 참가자 및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철폐와 채길용 어용집행부 탄핵”을 위한 서명작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어용 집행부의 직권조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리하고 철폐를 기치로

투쟁하고 있는 한진 노동자들이 진짜 소금꽃이다. 이 노동자들이 완강하게 투쟁을 계속해나가고, 희망버스가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낼 때, 가짜 소금 꽃들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 내가 바로 소금꽃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철폐투쟁은 희망버스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진의 행태가 속속 폭로되고 있다. 이미 한진을 비호하는 정권은 거짓공약과 거짓말이 이미 폭로되고 검증되어서 사기꾼들 말고는 신망하는 사람들이 없다. 자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희생일 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쟁이 아직까지는 산발적으로만 벌어지고 있다. 이 투쟁의 전진을 위해서는 투쟁의 의제를 확대하고, 완강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당장 비정규직 철폐 투쟁, 야간노동 철폐 투쟁,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4대강 반대 투쟁, 철거민들의 투쟁들이 반자본, 반정권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아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을 2012년 선거국면을 위한 지렛대로서만 바라보거나, 언젠가 폭발적인 대중투쟁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소금 꽃은 곧 비바람에 시들어 사라지고 만다.



내가 바로 소금 꽃이고, 내가 희망버스 기획자다. 이 선언은 정리해고가 철폐되기 전에는 결코 땅에 내려올 수 없다는 김진숙 동지의 절규이고, 정리해고가 철폐되기 전에는 결코 희망버스는 멈출 수 없다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응답이다. **혁명**



# [희망버스]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말고 더욱더 직접행동으로 나아가자!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버스'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 동안 투쟁을 해도 고립되고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절망감과 패배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희망버스가 새로운 연대투쟁의 희망과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희망버스'를 통해 연대가 확산되고 이 연대투쟁이 초점이 되어 그 동안 쌓여온 대중들의 분노가 터져 나올 조짐을 보이자 이명박정부와 경총 등 자본가계급은 전에 없이 "노사 자율"을 외치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자투쟁을 짓밟던 이명박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노사자율을 떠벌들었다고?

### 민주당 - "균형"을 잃지 않는 줄타기

한편 희망버스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한 마디로 "가죽은 탐내고 호랑이는 무섭고..."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코너로 몰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당 대표 손학규에게 희망버스에 오르라고 재촉하다가도, 자칫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버스보다는 노사 중재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희망버스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는 등 방침을 못 정하고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 부르주아 정당으로서의 그 계급적 본질과, 다가오는 총선 ·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현실 조건 사이에서 줄타기를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물론 줄타기에 성공해서 집권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정권 때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노무현 정권 때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계급적 본성에 충실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민주당에 대한 진보정당들의 태도이다. 진보양당은 '희망버스'를 통해 야권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데 민주당이 희망버스로 확장시켜주지 않자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야권연대의 핵심이제로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3차 희망버스에 참여하고 "국회청문회를 개최해서...총대를 메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전 대표도 손학규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제 역할 못하면 희망버스라도 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희망버스를 안타겠다는 손학규에게 "희망버스가 곧 노사 대화하라는 시민의 목소리인데"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 야권연대 강화를 위한 수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게 희망버스와 85호 크레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가 정당과 마주 잡은 손을 더욱 짊

잡고자, 노동자와 시민들(그 대다수가 미조직 노동자들인)이 힘겹게 차려놓은 밥상을 가로채 야권연대의 밑밥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과 김진숙 동지의 목숨을 건 투쟁, 그리고 희망버스로 새로운 연대의 희망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나선 대중들의 투쟁을 국회로 가져가 의원들의 청문회 입씨름으로 쪼그라뜨려 놓겠다는 것인가.

작년 겨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영웅적인 공장점거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해 온 대중들의 희망으로 급속히 떠올랐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 투쟁을 받아 안아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시키기 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연대에 의존하여 제도정치권 내에서 '해결'하려 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 투쟁을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정치력'을 높이기 위한 소재로만 삼았을 뿐 투쟁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계급투쟁의 확대를 막아야 하는 처지였다. 결국 야4당의 기만적인 중재와 타협 종용으로 점거농성을 풀자마자 현대차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투쟁은 패배로 끝났다.

### 자발적인 대중행동과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결합하는 전망을!

희망버스 투쟁을 촉발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도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투쟁 방기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인해 그 동안 고립된 속에서 수백 일을 버텼었다. 물리적 위력과 자본에 대한 타격 면에서 희망버스보다 몇 배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민주노총 차원의, 아니 최소한 금속노조 차원의 연대총파업이 있었더라면 한진 정리해고 저지투쟁은 이미 승리했을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무기인 총파업이 노조 지도부들에 의해 창고 속에 가두어져 녹슬고 있다 보니 '희망버스' 같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투쟁과 직접행동이 보다 못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희망버스 투쟁에 힘입어 역으로 노동조합의 파업과 현장투쟁이 솟구쳐, 이 자발적인 대중행동과 조직된 노동자 투쟁이 결합한다면 한진 정리해고 저지를 넘어 그동안 후퇴와 수세로 몰릴 때까지 몰린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본과 정권에 대한 총반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계기를 살려 투쟁의 확대를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희망버스 투쟁에 편승하여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 매달리는 등 오히려 야권연대 강화를 옹인 하고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지도부들에 의해 노동자 연대의 상징 '희망버스'가 자본가 정당과 손잡은 야권연대, 민주

대연합의 부속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은 그 동안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마비시키고 갈아먹었다. 이제 그 투쟁을 대신해서 터져 나온 희망버스마저도 자본가 정당과의 공조를 위한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희망은 환멸로 바뀔 것이고 희망버스의 성과는 정치권이,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이다.

### 투쟁의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하고 직접행동 정신을 더욱 살려나가야

희망버스 투쟁이 이러한 위험과 장애 앞에서 굴절되지 않고 올곧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희망버스'를 통한 우리의 연대는 일차적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대한 연대이다. 정리해고 철폐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의 연대투쟁은 멈출 수 없다. 단순히 한진 조남호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세 차례나 수만 명이 희망버스를 탄 게 아니다. '정리해고 분쇄'를 우리 투쟁의 기치로 치켜들고, 이 기치를 중심으로 투쟁의 요구를 '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 '자본의 위기 전가 반대'로 확장해 나가자.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라 유성기업, 쌍용차, 현대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결집하여 연대투쟁의 불길을 굿구치게 하자.

야4당,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말고 희망버스의 직접행동 정신을 살리고 강화시켜야 한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반대하여 역동적으로 전개된 그리스, 스페인, 이집트의 노동자 · 청년들의 광장 점거투쟁 또한 우리의 희망버스 처럼 기성 정치권에 의존하지 않는 직접행동 속에서 발전해 나온 것이다. 활기차고 진정성 어린 연대투쟁의 힘을 보여준, 그리고 대중 직접행동의 새로운 투쟁 양식을 만들어내자!! **혁명**



**[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  
 우리은행 1002-735- 860549 (오세철)

**[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